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2023년 3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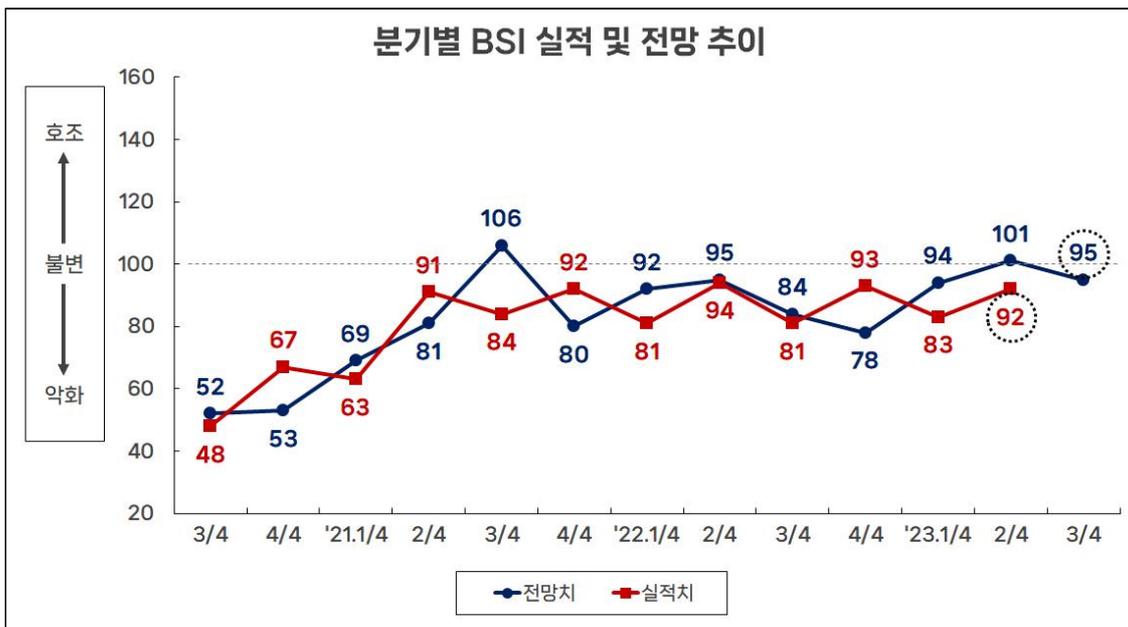
1 전반적 경기 전망

■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95**, 대외여건 불안요소 늘어나며 전분기대비 체감 경기 악화 전망

○ 23년 2/4분기 '101' → 23년 3/4분기 '95' (전분기 대비 6p 감소)

- 원달러 환율 안정과 연속된 금리동결로 긴축 완화 기대감 존재하는 반면, 글로벌 경기 약화와 원자재 수급 불안정, 에너지가격 인상 등 경영 불안요소 혼재로 지역 제조기업 실적 호전 여부 불투명

○ 2023년 2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'92' (전분기 대비 9p 증가)



○ 응답기업, 경기불변 전망 우세한 가운데 악화 불안감 존재

- 직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63.5%(158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5.7%(39개사)인 가운데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20.9%(52개사)

< 2023년 3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40	158	52	250
구성비	16.0	63.2	20.8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호전을 제외한 공급망 안정성 및 사업장·공장 가동은 큰 변화없이 이어갈 전망

○ 매출(96), 영업이익(94)

-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對중국 수출실적 감소와 주요 수출국들의 통화긴축 지속 등 대외 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 예상
- 또한,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역 제조업 영업이익 단기 내 회복이 불투명

○ 설비투자(104)

- 유가 약세 및 환율 안정, 금리인상 기조 완화 등 대·내외 어려움 완화로 설비투자 회복전망 우세

○ 공급망 안정성(100)

- 화물운임 및 국제유가 감소로 비용부담이 줄어들었으나, 러-우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전망

○ 사업장·공장 가동(100)

- 전기요금 인상 등 운영비용 증가와 리오프닝 이후 회복을 기대했던 對중국 무역의 부진으로, 중국 경기회복 이전까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3.1/4분기	'23.2/4분기	'23.2/4분기	'23.3/4분기
체감경기	83 →	92	101 →	95
매출액	82 →	93	100 →	96
영업이익	82 →	90	100 →	94
설비투자	78 →	100	93 →	104
공급망 안정성	80 →	95	94 →	100
사업장·공장 가동	93	97	103 →	100

3 주요 업종별 전망

- 자동차·부품, 조선·기자재, 의복·모피 등의 업종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반면 전기·전자, 음식료품, 1차금속 등은 경기 부진을 전망

○ 기계·장비(96), 전기·전자(75)

- 중국의 경기둔화 지속으로 기계·장비 및 전기·전자제품 수요 감소하였으며, 재고물량 증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업황 악화

○ 자동차·부품(107), 조립금속(100)

- 부산지역 완성차 제조업체 수출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업황 회복하였으며, 자동차·조선업의 호조와 함께 부품 및 조립 금속 수요 증가하며 경기 호전 기대

○ 음·식료품(88)

- 최근 곡물가 약세로 경기회복 기대감 일부 존재하나, 음·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재고 소진의 어려움 지속

○ 신발(106), 의복·모피(130)

- 휴가철 시작 등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신발·의복 수요 증가하며 관련 원부자재 생산 업종도 회복세 이어갈 전망

○ 화학·고무(117)

- 러-우 전쟁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유가 정상화와 원달러 환율 안정으로 경영실적 회복 기대 전망

○ 1차금속(73)

- 글로벌 1차금속 수요회복 지연과 국내 철강 유통가격 하락 및 건설경기 둔화 등 내수부진 지속으로 업황 악화

○ 조선·기자재(110)

-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선 등 친환경 운반선 수요 증가와 PCTC(자동차운반선) 수주 증가로 조선업 슈퍼사이클 조기 진입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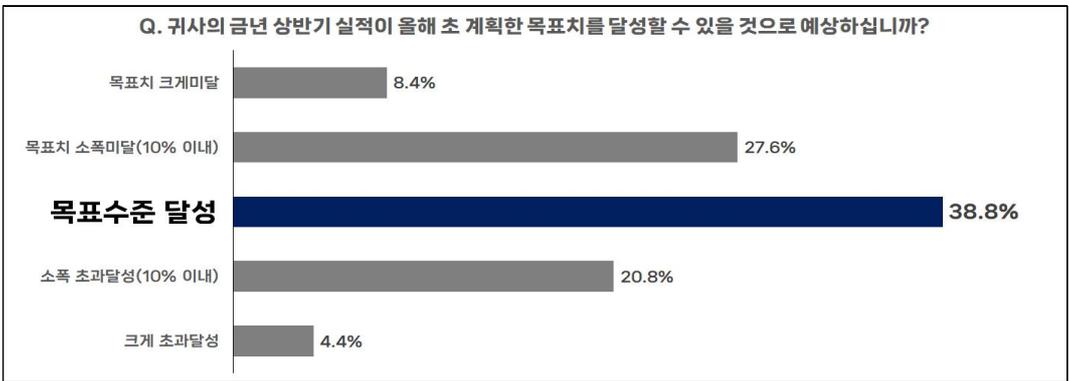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3.1/4분기	'23.2/4분기	'23.2/4분기	'23.3/4분기
조립금속	88 →	100	92 →	100
전기·전자	115 →	75	125 →	75
기계·장비	92 →	96	132 →	9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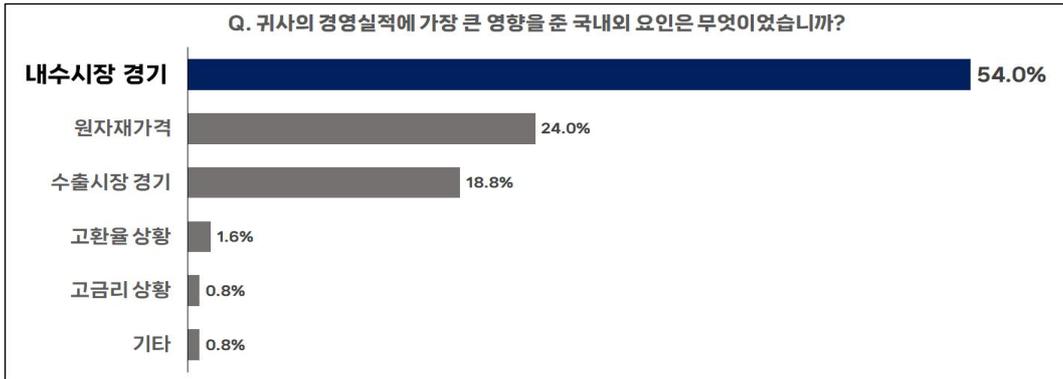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‘23.1/4분기	‘23.2/4분기	‘23.2/4분기	‘23.3/4분기
자동차·부품	92 →	107	92 →	107
조선·기자재	90 →	110	103 →	110
음·식료품	53 →	75	120 →	88
섬유제품	47 →	63	60 →	63
의복·모피	119 →	110	119 →	130
신발제품	47 →	119	87 →	106
화학·고무	87 →	83	100 →	117
1차금속	80 →	77	92 →	73
조립금속	88 →	100	92 →	100

4 기타 경영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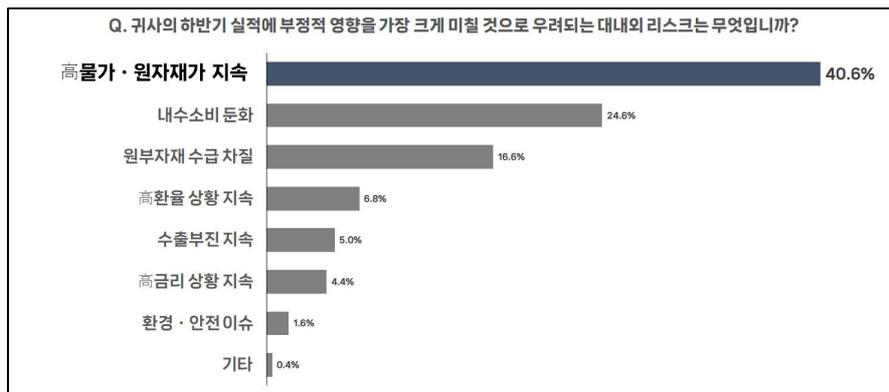
- 대부분의 지역 제조기업에서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,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절반 이상이 ‘내수 시장 경기’ 를 꼽음
 - 목표치 미달을 예상하는 기업이 36.0%를 차지하며 여전히 지역 내 경기침체 우려 존재하나, 경기저점 도달에 대한 예상으로 상반기 목표실적 달성에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(64.0%)를 차지



- 내수시장 경기(54.0%)가 경영실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, 이외에도 원자재가격(24.0%)과 수출시장 경기(18.8%)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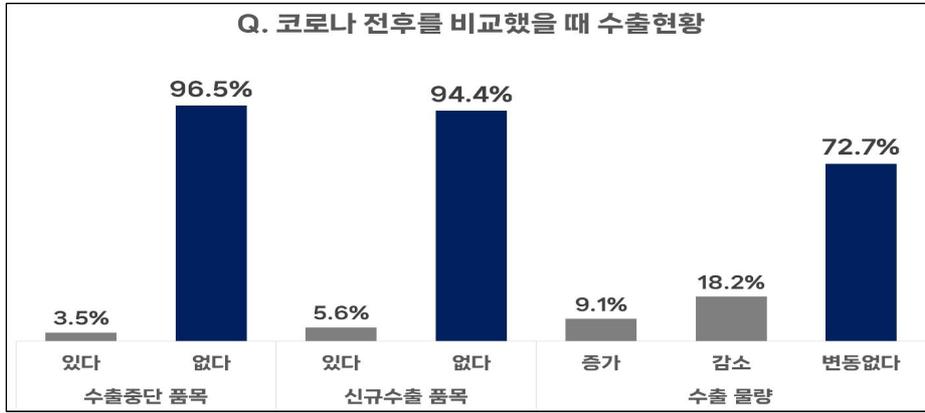


- 하반기 경영 위험요인으로 ‘高물가·원자재가 지속’ (40.6%)과 ‘내수소비둔화’ (24.6%)를 꼽음
 - 반면, 직전분기 실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던 ‘고금리·고환율’ (7.0%)은 금리인상 기조 완화 및 환율 안정화 등으로 비중 감소(4.4%)



4 팬데믹 사태의 수출 영향

- 코로나 사태 전·후, 수출 품목 및 수출 물량 증감이 존재하는 기업이 일부 존재하나, 대부분 변화 없으며 코로나와 큰 관계성을 보이지 않음
 - 또한, 자동차 및 전기·전자, 조선기자재가 주력 수출품인 부산은 대부분 견고한 수출 상태를 유지



- 수출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, 주요 요인으로 ‘수출시장 판매 부진’ (46.3%) 등이 있으며, 수출 물량 증가 혹은 신규 수출이 시작된 경우, 주요 요인으로 ‘수출시장의 수요 증가’ (47.8%) 등이 꼽힘

